

현대불교 애독자 인터뷰

최종열 씨 가족

◇영구독자인 최종열 거사의 친척들이 함께 모일 때면 언제나 현대불교신문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최종열 거사.



7년간 삶의 길 밝혀준 등대

“삶의 방향속에서 처음 만났던 현대불교는 7년간 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등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면 곳곳에서 만난 감로법문들은 바른 일상에 쫓겨 불교 공부에 게을러질 때마다 신생활등에 박차를 가해주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94년 10월15일 창간 이후 7년간 한주도 거르지 않고 '현대불교'를 보고 있다는 창간 독자 최종열(40·성산아트홀)거사. 최거사는 신문이 오기가 무섭게 부인과 함께 꼼꼼히 정독한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몇 번 받아보다가 읽을 거리가 풍부해 아예 영구독자가 됐다. 최거사가 즐겨보는 난은 '가까이서 뵈 큰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불자세 상보기' '불교와 과학' 등.

“특히 전국에 있는 훌륭한 스님들의 주옥 같은 법문을 직접 사찰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읽을 수 있는 '가까이서 뵈 큰 스님' 코너를 즐겨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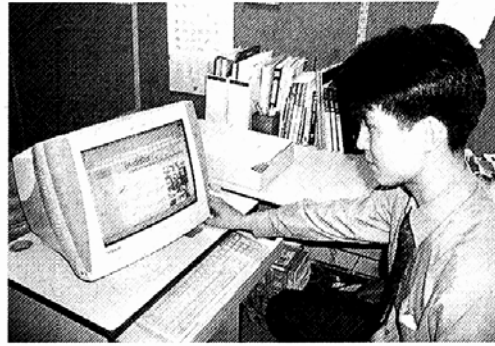
최거사는 자신의 가족들만 이런 귀한 글들을 읽는 것이 못내 아쉬워 장인과 장모를 비

장인·장모·누님셋도 영구독자 '가까이서 뵈 큰 스님' 즐겨 읽어

롯 누나 셋과 매형을 모두 '현대불교'의 영구독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친척들이 함께 모일때면 언제나 가족들 안부와 함께 현대불교 얘기도 빼놓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교리나 법문을 매주 스크랩했다. 최거사는 현대불교의 인터넷 일간신문인 '붓다뉴스'가 생기면서부터는 스크랩 작업을 중단했다. '현대불교는 지난기사의 자료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 컴퓨터만 켜면 원하는 기사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매일매일 인터넷 '붓다뉴스'를 보면서 불교계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최거사는 “항상 첫 신문 만들때의 초발심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매신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일곱번째 '현대불교'의 생일을 축하했다. 김주일 기자



박순계 씨

◇현대불교를 받으면 '주제가 있는 법문'을 제일 먼저 본다는 박순계 씨는 현대 불교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는 다온발아 다른 모임에 보내 주겠다는 권리를 세워 놓고 있다.

믿음 다져주는 수행의 도반

불교계 정보 알려주는 길잡이 '주제가 있는 법문' 도움 많아

현대불교에 난 좋은 기사를 읽고 다른 불교사이트에도 보내 널리 읽게 하는 불자가 있다.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박순계(30)대리. 그는 현대불교를 받으면 제일 먼저 '주제가 있는 법문'을 펼쳐 본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러 시간 내 스님들을 찾아 법문 듣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가장 먼저 눈길을 간다. "주제가 있는 법문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고 가슴에 와 닿는 법문이 많아 저절로 눈길이 갑니다.”

9월까지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 본말사 부설 대구불교대학에서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보면 박 대리에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학보에 실을 법문을 청탁하는 일이었다. 자신도 교리 공부를 할 때 느끼지만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읽다보면 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의문이 풀릴 때가 많기 때문에 스님들의 법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세이클럽 (www.sayclub.com)의 불교 동호회 창년불교 우리사랑 사이트의 급우의 법문 코너에 들어갔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거기에 실린 법문들이 "너무 좋아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법문들이 바로 현대불교에 나왔던 것임을 알게 됐고 현대불교가 새롭게 다가왔다.

“경계에 부딪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법문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순화되고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99년 대학을 졸업하고 동화사 포교계장으로 일할 때부터 불교계의 움직임이나 돌아가는 형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도 현대불교는 길잡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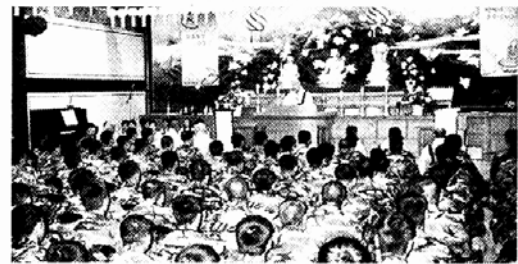
박 대리는 “침체된 청년불교와 불교대학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열성 독자로서의 주문도 잊지 않았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불교TV 북미 한인방송과 협정

불교TV(사장 이수덕)는 8일 아이스카임 회의실에서 북미지역 한인 위성방송 사업자인 아이스카임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이수덕 사장은 “조석예불과 사시불공, 교리강좌, 경전공부 등 미주지역 불자들의 신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국 백마사 상록수부대 위문

광주 호국백마사는 10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청 동티모르 파병부대인 상록수부대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파병장병 120명과 하사관후보생 130명 등 총 3백여명의 군부대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세계 어느곳에 있든지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당당하며 흐트러짐 없는 군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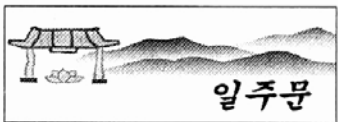
조계사 혼성 합창단 9일 창단

37명으로 이루어진 조계사 혼성 합창단이 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조계사 혼성 합창단은 불교계에 취약했던 남성합창부분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준 높은 음성공양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창단식에는 조계사 혼성 합창단의 시범 연주와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축하연주가 이어졌다.



제주 무연고 고혼 7만기 천도제

제주도내 성지순례 전문 이벤트 다도문화기획 투어대표 조인석'는 7일 제주시 노형동 아흔아홉골 시공설 공원묘지내 무연분묘지현장에서 조인석 대표 등 30여명이 동참해 연고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7만여기의 고혼들을 위한 위령제를 불교의식으로 봉행해 주었다.



일주문



정방사 낙성식 범어

해정 범주사 율주스님은 10일 제천 정방사에서 열린 낙성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해 법문했다.



부산지장 감사장 받아

도법 심광사 주지는 9일 '한글날' 기념식에서 삼광한글학술상 제정 등의 공로로 부산시 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1세기 한국어글' 펴

도법 실상사 주지는 경향신문 창간 55주년 기획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글 5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한글대장경 공로 월운 스님 외출상 수상



동국여경원장 월운 스님이 23회 외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어학자 외출 최현배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외출회는 해마다 나라사랑의 뜻이 투철한 사람으로 학술과 실천 두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외출상을 주고 있다. 월운 스님은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 완간해 우리 말글의 우수성을 드높인 공로로 실천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9일 광화문 한글회관 강당.



범어사 원로 여환 스님 입적

범어사 원로 여환스님이 10일 오전 밀양 석정암에서 세수 78세, 법랍 50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14일 범어사 보재루에서 거행됐다.

1924년 황해도 재령군 석정리에서 태어나 52년 범어사에서 출가 동산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여환스님은 지요스님을 은사로 교학을 배웠으며,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범어사·연곡사·석굴암·칠불사·불국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10여 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지리산 연곡사 서울 도봉산 천축사, 불국사 석굴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울산 동대사 성불사와 부산 대법사, 밀양 심광진 복천사를 창건하는 등 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여환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과 前 범어사 주지 통광스님의 은사이기도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본사사령

△취재부 차장대우= 한명우 김중근 김재경 이은자 △광고영업부 차장대우= 김학표 △교역부 차장대우= 이동혁 △관리부 차장대우= 이승철 △불교정보센터 과장= 최정근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바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입실적이고 입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 보십시오.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통도사 開山 1356주년 기념

통도사 개산대제



입재 양력 10월 24일 | 법요식 양력 10월 25일 오전 10시

귀의 삼보하옵고, 하늘빛의 청아함이 가을을 대변하는 절기입니다. 이 좋은 계절,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 1356년을 기리는 개산대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 뜻깊은 자리에 무루 동참하시어 축하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일정표

입재

- 2001년 10월 24일(음력 9월 8일)
- 10:00 - 개산대제 및 문화대전 입재식 (사생대회 개최)
- 13:00 - 개산1356주년 기념 부도헌다
- 14:00 -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친견

기념법회

- 2001년 10월 25일(음력 9월 9일)
- 10:00 - 개산대제 법요식
- 12:00 - 유치부 재롱잔치
- 13:00 -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 14:00 - 제6회 괴물탕 특별전 고승 선묵전 개막

영축예술제

10월 21일(일) 오전 11시 제1회 영축예술제 개막 - 통도사 하노전 일대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 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문의 : 전화 055-382-7182~7 전송 055-382-7196
www.tongdosa.or.kr